

對 話

봄, 축대, 排水管

봄마다 있는 일 이지만 이 봄에도 축대가 무너져 열일곱 명이나 되는 어린 少女들이 잠자다 그대로 壓殺된 사건이 벌어졌다. 봄이면 으레히 있는 일이고, 또 그 축대가 위험한 것까지 알고도 그대로 방치해 둔 회사측이나 위험 신고를 받고도 모른채 한 市當局의 責任을 물어도 끝이 없겠지만 한 마디로 하면 설마가 사람을 매죽음 시킨 것이다.

봄은 大地에서부터 찾아 온다. 大地는 봄을 解氷으로 응한다. 大地는 겨울의 억압에 뽐뽐 열어 冬眠 상태에 현상을 유지하다가 봄이 오면 그 억압을 풀고 눌러 잠들던 生命들의 물출구를 마련해 주기 위한 듯 어머니 젖가슴처럼 開放의이며, 부드러운 품으로 변한다. 그런데 이 봄에 축대도 무너지고 山도 무너진다. 이점 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언채로 두는 겨울이 계속되면 安定 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겨울만 지속되면 축대는 유지될지 몰라도 돌아나야 할 새 싹이 영영 죽어 버릴 것이다. 아 니! 아무리 심한 겨울이 延命하려고 버티도 봄은 정녕 오고야 만다. 그러니 축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축대가 무너진 까닭은 排水管이 막혀서 그리로 흘러 내려야 할 물이 축대가 의지한 땅에 번졌기 때문이란단다. 더운 때는 大地가 그것을 빨아드려 그런대로 유지되다가 겨울에는 땅마저 얼어서 그 물은 表面에서 탈출구를 찾아 축대의 물 사이로 숨어 들었는지 모른다. 겨울은 그 물을 그대로 凍結시켜 봉괴를 保留시켰는데 봄과 더불어 여름은 도로 물이 되고 大地마저 병동시켜서 마침내 축대는 무너졌으며 그로 인해 참상까지 빚은 모양이다.

봄의 和氣는 피부로 숨어들어 움추렸던 사지가 저절로 펴지는데 우리의 政局은 그대로 겨울이어서 몸은 봄에 풀리는데 마음은 政冬에 언 채로이다. 결국 균형을 잡을 수 없는게 봄을 맞은 우리의 실정이다. 너무도 오

만 政局의 겨울이다. 執權者들은 겨울을 오래 붙잡아 두는 것으로 축대붕괴의 비극이 오지 않게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겨울만 지속하면 새 생명은 다 죽는다. 또 오는 봄을 언제나 차단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政府도 축대 무너지기 전에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사람의 사회에도 언제나 排水管이 있어야 하고 排氣 통이 있어야 한다. 정상적인 삶에도 배설할 것이 많지만 병적인 상태에서는 그것이 더 많은 법이다. 그런데 배설할 통로를 모두 막아 버리면 결국 民心은 물이 되어 축대를 근본에서 위태롭게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 정치는 무엇이든지 틀어막고 凍結시키는 것을 唯一한 方法으로 아는 인상이다. 이 수법은 비단 政府만이 아니라 企業體 심지어 知性을 대변하는 신문사에까지 번지고 있다. 이걸 마침내 축대가 송두리채 붕괴되는 위험으로 물고 가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람이 사는 사회의 배수관은 疎通이라고 한다. 權力, 經濟, 思想 등이 위 아래로 좌우로 소용될 때 그 사회는 전진하게 발전한다. 한 사회가 붕괴되지 않으려면 뚜렷한 排水管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크게는 自由겠으나 구체적으로는 言論의 自由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歷代의 政府는 이 排水管을 第一 싫어하며, 그것을 틀어막는 일만이 政治인양 행동해 왔다. 그러나 言論이라는 排水管을 막으면 民心은 축대 아래로 숨어 들게 마련이다. 어느 신문을 탄압했더니 民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잘 보아왔다.

言論自由의 길을 막아서 이미 많은 民心이라는 물이 축대 아래로 숨어들었다. 이 마당에 凍結의 겨울을 최대한으로 延長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은 안 된다. 아직도 늦지는 않다. 이제 할 일은 하루 속히 배수관을 크게 넓게 뚫어놓고 나갈 길을 잃어 숨어든 물이 녹는대로 그리로 빠져 나가도록 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排水管에서 나오는 물은 惡臭를 뿜을지 모른다. 그러나 썩은 것은 배설돼야만 한다. 그 惡臭가 싫어 틀어 막은채 봄을 마지하면 축대가 무너진다.

축대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言論의 排水管을 활짝 열어라. 惡臭는 나도 그것이 축대를 위태롭게 않는다. 도둑도 빠질 구멍을 열면서 쫓아야지 닫은채 쫓으면 흉기로 맞선다. 하물며 부조리에 찬 현실을 告發하는 국민의 意思表示의 길을 막고야 이 사회가 어떻게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으라!

몰트만의 來韓

난 본래 게으르기도 하지만 사람을 찾아가는 버릇이 없다. 10年 서구 생활에서도 그 많은 저명한 학자들을 만날 수 있었어도 일부러 찾아간 일은 없다. 몰트만을 위시한 신약 학자들은 학회에서 만났을 따름이고 그 외의 학자들은 어쩌다 초대가 되면 가거나 아니면 공석에서 만난 것이 고작이다. 잘못된 버릇인지도 모른다. 학문에 정성이 있으면 그런 碩學들과의 대화도 熱心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바젤에 가서 하루 밤 자고 바젤大學을 구경까지 하면서도 分明히 집에 있으리라는 바르트도 만나지 않고, 그대로 왔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을 때 그때 한번 만나 한 두 마디라도 나눌 걸 하는 후회같은 느낌을 했다. 지난 번 독일에 갔을 때는 두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 만났는데 한 사람은 親한 사이기에 여러번 만났다. 한 사람만이 새 얼굴이었는데 그것도 함께 간 친구의 계획에 同伴했을 따름이다. 그때 튜빙겐에 머물고 있는 朴鳳瓚 박사를 일부러 찾아 갔었는데, 원하면 거기 있는 몰트만을 만날 수 있었으련만 그럴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도라오고 말았는데, 이번 그가 來韓해서 비로소 일顔を 보고 얘기도 나누었다. 그는 一週日을 여러 차례 강연을 했으나 나는 韓神에서의 강연과 우리 研究所가 주관한 YWCA강당에서의 강연을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 밤에 친구들 몇명과 함께 비로소 그의 신학적 입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의 大衆 강연은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약간 저조했다는 것이 일반의 평이었다. 그러는 그는 대중 강연에 맞는 학자는 아니다. 그보다 문제는 그의 말이 우리의 절실한 현실 요청에 부합될 까닭이 없다. 역시 그는 그 사회의 사람이고 우리 일은 물 건너 불이다. 그러므로 그의 말은 原則論에서 넘어설 수 없다. 또 하나는 이제는 우리도 상당히 의식화했으며, 그나름대로의 神學化의 方向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역시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고 참 대답은 우리의 입과 행동에서 나와야 한다.

그런데 그와의 대화 등에서 몇 가지 사실을 더 분명히 할 수 있었다.

첫째 그는 神學傳統이라는 큰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神學은 주로 독일이 主導해 왔다. 그러므로 독일 神學者들에게는 신학적 전통이 바로 자기들의 歷史에 따라서 그것을 가볍게 배제해 버리고 새롭게 바둑두듯

할 수 없다. 이런 오랜 傳統을 가진 것이 일면 부러우면서도 他面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 할가분하게 앞으로 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글에서 언제나 느끼는 것은 傳統의 장굴을 해매다 오리무중이 된다는 인상이 짙은데 이번 한신에서 하는 강연을 듣다가도 그런 생각을 했다. 그는 神 개념의 혁명을 설명하기에 부신했다. 그런데 그 개념은 自己들이 만든 것이다. 결국 해어나온 것은 고난의 神이라는 것인데 여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그렇게 힘들었다. 마치 장에물 경주하듯이 겨우 거기까지 도달하고는 기진하는 인상이다. 이에 반해서 우리에게 神學的 傳統이 없다. 그 대신 西歐神學의 문제제기와 그 해답의 과정 속에 일부러 지어 들어서 해매는 것을 神學의 임무로 안 것이 우리의 지난 날의 모습이다. 거기에 바로 神學이 우리에게서 소외되는 원인이 있는지 모른다. 까닭은 우리에게 西歐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곧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절실했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까닭은 남이 歷史的 투쟁 속에서 형성된 신학 과정을 그저 논리적으로 거쳐 본다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받아들여질 까닭이 없다. 그런 까닭인지 몰라도 그렇게 많은 신학적 교육을 했어도 그것을 배운 목사들이 강단에서 거의 배운 신학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본다.

우리는 西歐神學이 제기한 문제를 내 문제로 삼고 또 그들의 해답을 내 해답으로 하는 지금까지의 神學하는 태도를 지속할 것인가? 아프리카의 神學校들에서는 敎會史를 배우지 않는다는 말도 들었다. 까닭은 그것은 自己들과 상관 없는 것이고, 그보다 더 절실한게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여간 우리는 神學的 전통을 전적으로 無視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百科辭典을 의듯 그 모두를 거쳐야 한다는 태도는 버려야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공감할 가는 절실한 것만을 소화하고 우리의 現實 앞에서 우리의 것을 위해 힘을 기우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는 그의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 있다. 그것은 그가 아무리 혁명, 정치, 행동신학 등을 말한다고 해도 그는 역시 신학적 태도에서 출발해서 다시 그리고 돌아가는 전통적 서구 신학의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에게 독일의 사회 윤리하는 몇 학자들을 들면서 그들과 그가 다른 점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웃으면서 나더러 같은 점을 묻지 않고, 다른 점부터 묻는 것은 독일화 된 것이 아니냐면서 대답을 피하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저들은 사회의 현실 문제 分析에서 물음을 갖고 텍스트에서

대답을 찾는 방법을 취하는 데 당신은 어떻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더 이상 피할 길을 잃은듯이 그들과 자기와의 차이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는 사회현실 문제에서 출발하면 텍스트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로 내가 지적한 학자를 평해서 그들은 어떤 결단도 못 한다고 비판했다. 원치 않은 發說을 해 버린 쓴 웃음과 더불어, 결국 몰트만의 입장이란 역시 텍스트— 그의 입장은 신학전통의 테제에서 사회 문제로 갔다가 다시 텍스트로 돌아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이런 입장은 바로 내가 지적한 두 사람이 비판한 점이다. 저들은 몰트만의 신학은 현실을 말하나 끝내 추상적인 데서 一步도 못 나온다는 것이었다. 이런 비판을 다른 말로 하면 텍스트에서 출발한 자는 텍스트에서 현실로 나올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이렇게 되면 神學의 과제는 텍스트와 현실 사이의 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큰 문제라는 생각이 된다.

그럼 한국의 신학적 현실은 어떤가? 우리는 한국에서 성서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는 말로 듣는다. 아직도 축자영감설을 고집하는 세력이 압도적이니 그럴만도 하다. 그러면 한국의 신학적 풍토는 텍스트 中心으로 써 텍스트에서 출발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다르다. 우리는 한국의 강단을 보면 놀랄 것이다. 그것은 보수를 표방했거나 진보를 표방했거나 간에 성서는 그저 읽고 간간이 선언적으로 삽입할 뿐 그 내용은 온통 주변적인 얘기로 일관한다는 사실이다. 부흥회의 설교를 보라! 거기서 판치는 것은 만담같은 예화가 아닌가! 보수계의 설교를 보라! 그건 대체 도덕체통이 중심이다. 시대 감각에 예민한 설교는 그저 時事評論的인 것으로 일관한다. 要是 텍스트를 해석하고 거기서 대답을 찾으려는 努力이 없다. 이렇게 보면 비록 내세운 것은 성서제일주의나 실은 현실—그 현실을 파악하는 차는 대단하지만—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요새에는 사회 의식이 강화됨으로써 현실 문제에서 출발해서 그것에 그치는 느낌이다. 이렇게 되면 신학의 형성은 불가능하다. 나는 현실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현실에서 텍스트에 들어가서 대답을 구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혹은 성서 귀절을 대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나 해석되지 않은 성서는 죽은 것이다. 그것은 해석돼야 한다. 해석자는 텍스트의 존엄성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성서의 본 뜻을 밝히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며, 我田引水格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74년의 생애

지난번 참석헌 선생의 74회의 생신 일을 맞아 몇 분이 급작히 서둘러서 조용한 기념의 모임을 가졌다. 급작스럽게 전화로 알릴 정도의 준비로겐 관회관에 모였는데 그래도 150명 가량 모였고, 이름으로만 아는 김홍일, 이 인, 유진오 선생 등의 원로들을 위시해서 정일형, 장준하, 천관우 선생들, 그리고 신민당 종재 등도 참석했으며, 강원용, 서남동, 박형규, 김찬국 등 여러 목사님들과 그 외에 이 분을 존경하는 이들이 모였다.

나더러 이 분의 思想을 말하라고 해서 急造 강연을 해야 했다.

나는 이 분과 오랜 인연이 있다. 해방 직후 서울대학 기독교학생회 주최 강연회에 모신 것을 계기로 한 때, 이 분을 歷史學 교수로 모실 교섭에도 간섭했고(그때 서울대가 그를 받아 드렸다면 지금 이 분은 어떻게 됐을까?), 잘못 그 분의 글도 읽어 왔다. 그러나 찾아가 마주 앉은 일도 없는데 6.25를 맞았다. 피난 길에 나는 친구들과 더불어 野聲이라는 雜誌를 냈다. 첫호에 苦難의 意味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에서 나는 이 분의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를 언급했다. 그것은 비판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그 분이 그 글을 읽고 편언하기를 내가 오해한 듯하다는 것이었다. 그건 사실이였다. 까닭은 내가 입수한 뒷 부분 3분의 1은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서울 복구와 더불어 中央神學校에 있으면서 이 분에게 老 莊 강좌를 부탁했으며, 그 시간에 나는 학생들과 함께 빠짐 없이 그의 강의를 들었다. 그게 내가 老子를 알게 된 시초였고, 내 사고에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분과 마주 앉을 기회를 마련하지는 않았고 그의 글은 열심히 읽었다.

그런데 나는 이 분에게서 지을 수 없는 깊은 인상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그의 겸손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스승을 모시는 그의 자세에서였다. 서울수복 후 YMCA는 불탄 자리에 천막을 치고 있었는데 每金曜日 오후마다 柳永模翁께서 강좌를 가졌다. 나는 서울 수복한 후 한달을 텅 빈 승가사에 자리하고 공부하고 있을 때 문득 그 분 생각을 하고 사흘을 연달아 그 분의 가르침을 들은 일이 있다. 그것은 내 사고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런 탓에 그 분을 알았고, 따라서 그의 강좌에 계속 참여했는데, 함·선생께서 언제나 제일 앞 줄에 앉아서 경청하고 있었다. 허연 수염의 老人이 꼭 中學生처럼 스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柳 선생이 五山中學의 교장으로 계실 때 平壤高를 다니다가 3.1운동 만세에 참가하고 퇴학당한 함 선생이 편입했다는 것이다. 年齡은 10여년 差異! 그런데 그 후 함 선생은 이 분을 그의 唯一한 스승으로 모셨다. 그래서 언제나 (선생님이……)하면 바로 柳先生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 두 분은 함께 강연도 하고, 또 공동으로 교대하며, 강좌도 가졌다. 내가 직접 들은대로도 柳 선생은 함 선생이 우수한 분이며, 특히 역사에 깊은 관심이 있다는 칭찬을 들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사이에 금이 갔다. 이 날도 함 선생은 그의 말씀에서 유 선생님과과의 관계에 맹들었다. 그 스승을 찾아가 봐야 할 테인데 그러지 못한 지 오랜 것은 어떤 상처가 아물지 못한 탓이라면서 자신은 죄인이며, 지금 목숨을 내대면서도 옳은 일은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贖罪하려는 행위라고 했다. 그의 스승을 향한 마음의 발로는 또 한 번 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내가 함 선생님과 정말 담이 없이 가까이 모실 수 있는 것은 독일 있을 때의 두 달이다. 한 달은 車로 旅行, 한 달은 내가 머문 집에서 내 손으로 하는 식사를 대접하면서 정말 개방된 사귀임을 할 수 있었다. 그때 그 분이 하도 친구처럼 대해 주는 통에 그 분에 대한 내 버릇도 생긴 것이다. 그때 나는 이 분의 감추지 않은 사연도 들었고 또 유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落淚하는 것을 보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좋다. 하여간 나는 용서 못하는 스승을 나무랬다.

이날 이 분은 내가 한 이 분의 사상에 대한 평을 하나 하나 되새기면서 긍정하다가 오늘 이 분이 현실 참여하게 된 것은 나 때문이라고 했다. 전에도 종종 그런 말씀을 했는데 나는 귀담아 듣지 않았으나 이번 공석에서 처음으로 (이번 돌아가시면 가만 있으면 절대로 안됩니다)라고 한 내 말이 꼭 하나님의 저시처럼 들려서 그 때부터 정치 현실에 발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실은 좀 다르다. 그 때는 5.16군사 혁명이 생긴 때였다. 그런데 모두 民政으로 이양한다는 공약을 기다리고 있을 무렵인데 급작이 군인의 옷을 벗고 대통령으로 출마하기로 선언한 것이다.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런 보도를 한 신문을 보다가 이 분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비분한 표정으로 인도, 일본 등으로 들릴 스케줄을 취소하고 귀국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번 돌아가시면 그전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 먼저인지 그

후인지 기억할 수 없으나 어려운 시기에 세계 유람이란 어딘지 식연치 않아서 간간이 그의 의중을 물었던 것을 사실이다.

하여간 그로부터 十餘 年상! 이 분은 백발을 휘날리며, 民衆의 입이 되기를 서슴치 않았고 남모르는 많은 수난을 겪어 왔다. 주변에 사람이 많은 듯하면서 고독한 이, 그래도 나는 별반 이 분을 찾아 가는 일도 없다. 오히려 이 분이 나를 찾아 오는 도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고독한 탓이라.

日帝, 공산치하, 한국에서 옥에 드나들기를 7回나 했으면 그의 생이야 알만한 일이지.

같은 칼날 같으나 얼굴은 수줍음에 가득 찬 이, 74세의 노인이나 노인티는 없고 권위 의식과는 애당초 담 쌓은 이, 그의 사고는 언제나 젊었기에 나는 그를 좋아한다. 남이야 어쨌든!

無神論者를 爲한 예수 마코비취 著

294면 값 1,100원

安 炳 茂 譯

이 책은 지금 공산정권 안에 있으며 스스로 무신론자임을 표방하는 이의 저작이다. 그런데 이 책이 서구에서 출판되어 계속 베스트 셀러로서 읽혀지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그가 공산정권화된 사회에서 맑스가 생각 못했던 모든 부조리와 제반 문제들을 주저 없이 폭로하며 동시에 그리스도교 특히, 예수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새로운 동경과 그것에 따른 해석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有神論과 無神論의 對決을 실천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에서 새로운 예수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가 목표삼고 투쟁한 것들을 우리 현실에서 생생히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발행: 한국신학연구소 28-6602

서울 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64-11

향린빌딩 201호, 대체 서울 511642